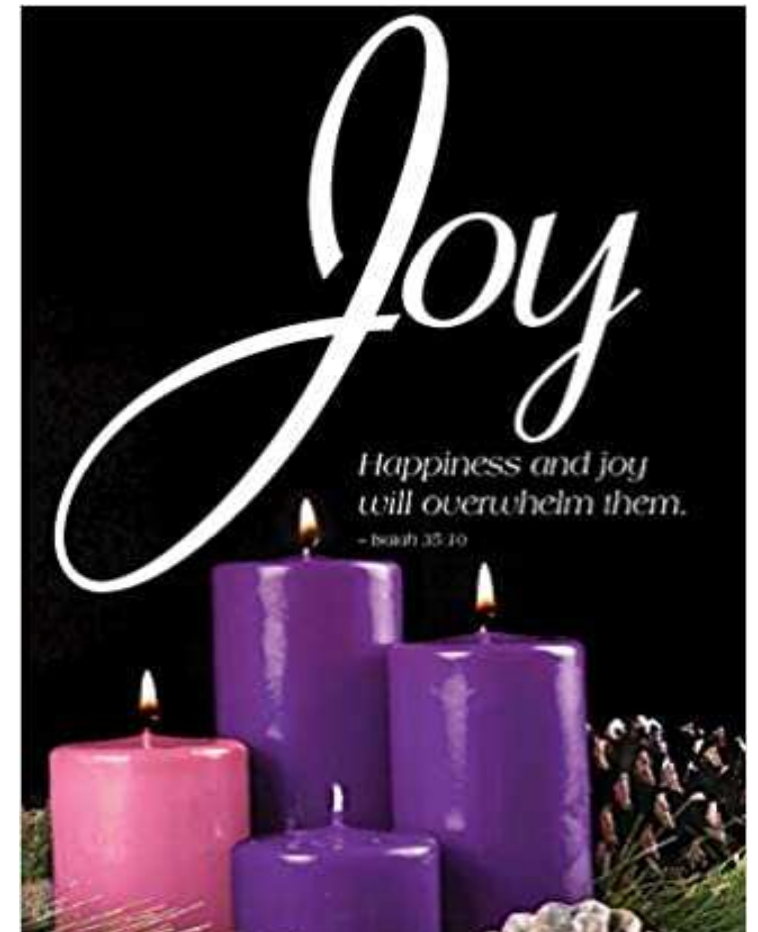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full of Grace and Truth

- 환영:**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대강절(Advent) 셋째주일:**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절기 색깔은 자주색이며, 촛불의 의미는 순서대로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 다음 주일:** 장세원 목사님 설교 (사임, 미육군 군목 사역) 다음 주일 친교는 교회, 찬양대, 주일학교에서 준비합니다.
- 성탄주일/송년주일:** 12월 25일 전교인 합동예배 / 18차 불라 나눔사역 실시 / 성탄꽃 포인세치아 기증해 주세요.
- 성탄준비모임:** 오늘 친교 후 목양실 / 참석자: 신도대표, 임원회장, 1/2여선교회회장, 시니어사역위원장(불라), 찬양대장, 예배부장, 교육위원장 등
- 남선교회 총회(회장 김우정 권사님):** 오늘 친교 후 본당 / 사업보고 및 신임원 선출 /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주관 성경골든벨 성경퀴즈대회:** 12월 25일 주일 / 전교인 대상(속회대항) / 범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 예배 직후 실시 / 개인상품, 속회상품, 참여상, 행운권 추첨 등 / 문의: 민예인 전도사님, 한선욱 권사님
- 2022년 교인총회 감사:** 한 해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선임, 선출된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고, 사명감으로 헌신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북클럽 격주모임:** 24일(토) 오전7시30분, 교회 도서실(2층)
- 묵상집/성경통독문제:** 내년도 묵상집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 한권 \$50.00 두권 \$80.00 / 통독 3년차 중 첫번째 해 / 통독과 묵상, 문제풀이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 주일학교:** 주일예배 및 찬양팀 연습(10am), 초/중/고 분반 제자훈련 13주(11am),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오는 토요일)
- 청년부:** 성경공부(줌) / 격주일 줌미팅 / 잠언 성경필사
- in-ear 모니터:** 설교 청취용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주일친교:** 오늘: 오사라 권사님, 다음 주일: 교회, 찬양대, 주일학교 연합 / 주일친교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 출타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2022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2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14)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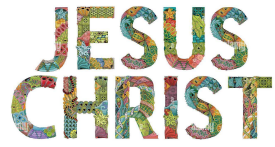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주일 10am
주중영상예배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Youth	2층 예배실
		Bible Study	주일 11am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격주일 줌미팅 3pm
주일중보기도모임	-		격주목 줌BS 7pm

[오�클랜드 한국학교] www.theekschool.com / 가을학기 오픈 8/27/토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Hyunsup Jung
hsjungusa@hotmail.com
- [부목사] 장세원(행정, 청년)
- [전도사] 민예인(EM, 교육)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한선욱





주 일 예 배

2022년 12월 11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장세원 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Hymn / 89장 "샤론의 꽃 예수"

회 중 기 도 Prayer / 장세원 목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작은 불꽃 하나가"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마태복음 1장 18~23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새가족 환영과 알림 Welcome & Announcement

❖ 봉헌 및 찬송 Offering & Hymn /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12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영상예배	11/12월 예배섬김
4	담임목사	수요영상예배 토요일영상예배	[안내/봉헌위원] 윤숙자 권사 황경숙 권사 정정수 권사
11	장세원 목사		
18	장유익 권사		
25	성탄 및 송년주일 조종애 선교사 박신원 자매		

[주중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정현섭 목사 / "기쁨의 언덕으로" 마태복음 말씀 묵상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 문 자	이원영 성도님		정지선 장로님
	박형옥 성도님		한연우 권사님
	도영호 형제님		-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2월4일 / 합계: \$6,271.15]

[십일조] 강비미안 김정미 민예인 양경혜 오금희 임은자 장세원
조길호/종애 한선옥

[감사헌금] 김우정 송의섭 장세원(추수) 정현섭 조길호/종애(여행)

[주정/주일헌금] 김국희 김순찬 김태원 남정우 엄기준 윤숙자
이선희 이옥배 이종혁 이학주 이향미 장예나 장예준 전상숙
정기호 정신애 정정수/제인 정지선 정현섭 최금열 최인택 한건석
황신례

[지정헌금] 황경숙(성탄꽃) [속회선교헌금] 임은자(살롬속)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78명	주중영상예배(수/토)	-

속 회	섬 김 이	모 임 보 고	모 임 안 내	선교후원
믿음	윤숙자/정현섭	12/9/금/교회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사랑	오금희/정현섭	/11명/\$250		
감사	이문자/정현섭			나눔의동산
살롬	김사현/김우정			예수사랑
와보라	박경숙/손수락	10/14/교회/10명	-	멕시코
온유	권정희/곽태길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이선이			러시아
주향한	현순정/양주섭			러시아
청장년	최규민/정현섭			기아대책
청년	김근환/장세원			-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참는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

어떤 교회에 작은 인원으로 성가대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열정은 좋은데, 음은 거의 음치 수준의 실력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또 예배 중에 찬양드릴 때마다 이분 때문에 음이 틀려서 성가대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성가대 전원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가대에서 빼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목사님도 한 두 분도 아니고, 전체가 와서 부탁을 하는지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치 집사님을 불러다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집사님 성가대 전체가 집사님이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하는데, 생각을 좀 해 보시죠?' 그러자 그 음치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전 50명 한테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이 음치 집사님이 '전 목사님 설교가 넘 졸리고 재미 없다고 50명이 넘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참고 듣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던 목사님이 무안해서 그냥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참는다는 것, 그것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주는 것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 소망의 절기 '대강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옮겨온 글 -

[기쁨의 언덕으로]	12일(월) 마태 13장	13일(화) 마태 14장
매일 성경통독과 묵상	14일(수) 마태 15장	15일(목) 마태 16장
12월: 마태복음	16일(금) 마태 17장	17일(토) 마태 18장